

구라보(Kurabo) 니트

- 2008년 춘하절용 니트 텍스타일 레이디스 및 이너용 강화

구라보는 2008년 춘하절용 니트 텍스타일 판매에서, 주력인 스포츠와 멘즈에 계속 주력하면서 이제까지 적었던 레이디스와 이너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내 자가 공장 설비를 활용하여 차별화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2006년 실적과 비교하여 약간 증가토록 할 계획이다.

2007년 8월말로 청산 완료되는 ‘구라시키 센코(倉敷 染工)’에서 해오던 염색가공은 ‘쓰(津)’ 공장으로 옮기고, ‘안조(安城)’ 공장의 방직과 편성기술, ‘쓰’ 공장의 염색가공 기술을 살려 차별화하려고 한다. 2008년 춘하절용으로는 ‘아름다움과 상질감(上質感)’, ‘기능’, ‘오리지널리티’를 키워드로 하고 있다.

‘아름다움과 상질감’에서는 정방교연(精紡交撚)이나 컴팩트 방직등으로 깨끗한 표면감을, ‘기능’에서는 흡수속건성을, ‘오리지널리티’에서는 가벼움(輕)이나 환경을 의식한 개발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점소재는 ‘스핀에어’, ‘구와트로 스핀’, ‘구레멜’, ‘구레멜 플러스’, ‘에어 마스터’, ‘제트스타’ 등이다.♣